

메이 영 박사,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들의 애가 비교, 세션 2

, 메이 영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 국가들의 애가를 비교하는 강의, 2차 세션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 국가들의 애가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애가를 비교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주변 문화들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이집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도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두 가지 주요 범주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송곡입니다. 사람들이 장례식 애도를 좋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간구의 성격, 즉 신에게 드리는 간구에 더 가까운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을까요? 그들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례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사례에서 성경의 애가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집트어와 이집트어의 텍스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나안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가리트어와 히타이트어, 그리고 수메르어와 바빌로니아어를 다루는 메소포타미아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텍스트들을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걸 단지 몇 가지

특정 텍스트에서 살펴볼 것들 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략한 강의일 뿐이지만, 여기서 주로 발견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문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찬송가와 기도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찬송가와 기도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왕국 시대에 이르면, 실제로 더 유사하거나 비슷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애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본문들이 신들과 그들의 기도, 간구, 그리고 요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18왕조에서도 기도문은 대부분 찬송가였습니다. 과도하거나 묘사적인 찬양이 특징이죠.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예들에는 반드시 탄식이나 간구, 선언적인 찬양이나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들을 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예들은 매우 유익하고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약학자 존 월튼은 이집트인의 기도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선언적인 찬양이나 감사는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즉 그 본질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찬송가가 더 많을 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행해진 구체적인 개별적인 행위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언적인 찬양에서 애가와 감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전 예배의 일부가 아니었고,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을 찬양할 수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성전 예배의 일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사례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왕조 시대에도 이러한 기도문들이 여전히 찬양의 찬송가에 가깝지만, 이제는 청원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문헌에서 신들에게 드리는 청원 내용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애가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여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차이점은, 첫째, 그것들은 보통 광범위한 찬양과 축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신들에 대한 찬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 아트마르 아킬은 이집트인들이 신들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저 들어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찬양과 축복, 심지어 청원과 궁극적인 의도를 담고 왔습니다.

결국 청원이 그들의 의도였지만, 그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앞서 말한 모든 칭찬이 필요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에 등장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아이들이 와서 "와,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라고 말하거나, "정말 잘생겼네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나 부모 같은 사람에게 아부를 해서 궁극적인 의도, 즉 요청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이 작품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의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문자에서 그런 점이 흥미롭죠. 죄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죄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집트 문학에서는 신의 자비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태도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와서 죄를 인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문화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즉, 문화적 측면과 그들의 세계관의 맥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트(ma'at), 즉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세상이 행위와 결과에 대한 믿음, 즉 응보의 원리를 통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응보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트(ma'at)나 그들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혼돈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정의와 마아트, 그리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진실과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혼돈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즉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혼돈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특히 내세와 그들이 내세를 바라보는 방식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내세에서 그들의 심장이 깃털 옆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들이 정의나 혼돈에 기여한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에서 드러나는 유사점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하나는 여기서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태양신 아문-레를 마트(Ma'at)를 보장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이 세상에 정의를 보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실제로 정의를 위해 신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신께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보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실제로 와서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는 지상 세계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적들은 모두 혼돈이나 이스페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라오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런 의미에서 신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야훼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정의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야훼께 기도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행동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결국 야훼께 적대하고, 야훼를 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원수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방식에서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의 유사점과 그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저와 관련이 있는데, 가나안, 특히 우가릿과 관련된 예시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우가릿, 또는 현대 시리아에 있는 우가릿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하신 내용은, 많은 경우 행정적인 텍스트나 목록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애가 시편에서 발견되는 내용과 꼭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 본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서사시와 비슷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편이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도문이 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옥스퍼드 시편 편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종류의 광범위한 목록과 그들이 보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병렬법을 사용하는 공통된 시적 스타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렬법은 히브리 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두세 행을 반복하고, 동의어와 때로는 반의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시적 기법입니다.

잠언서와 시편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법, 즉 시적 스타일은 우가릿 문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의 왕권, 원수에 대한 승리, 신의 조언, 그리고 지하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 헤이스팅스 패튼은 몇몇 주제들이 공통적인 어휘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때로는 독특한 철자법이나 축약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통된 어휘, 공통된 스타일,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유사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크 스미스는 우가리트 문헌의 주제가 때로는 죽은 자에 대한 헌신이라는 의미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우가리트 문헌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을 살아 계신 분의 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시편의 신격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유사점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이 본문들이 바알 신을 다루고 있으며, 일종의 신화적 이미지를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 구름을 쓰는 것과 같은, 혹은 그 안에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신화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장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인 시를 씁니다. 묘사적인 찬양과 신에 대한 찬송도 있고, 탄식과 서원, 불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 본문에서처럼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비교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어느 정도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윌리엄 할로우는 이 모든 연구에서 제시된 우가릿 문서들이 찬송가도 기도문도 아니며, 따라서 성경 시편이라는 범주를 간접적으로만 조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내용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문서와 고대 근동 이웃 국가들 사이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 중 하나는 성경의 유일신론적 세계관과는 대조적으로 다신교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들은 실제로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신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활동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신들에게 간청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사례, 히타이트의 사례, 즉 우가리트에서 히타이트의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터키의 히타이트 제국을 말하는 건데, 이는 구약성서의 애가 시편과 유사한 예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7세기경 고대 왕국의 기도는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띠었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응답으로 쓰이거나 특정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도문들은 분명히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띠었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기도문이나 텍스트의 종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건국된 후 어느 시점에 많은 왕실 기도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도문들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데 더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나 왕국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낭송했던 특정 왕이나 왕족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대개 다양한 신이나 상황, 적에 대한 지원, 역병, 질병 치료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간청으로, 이 문헌에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다른 고대 근동 지역 국가들처럼 히타이트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무와탈리의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는 83개 지역의 140개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신을 염두에 둔 다신교적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문화, 성경, 그리고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야훼만을 그런 의미로만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인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타이트 기도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신과 관련된 거래적 세계관입니다. 아주 거래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네가 내 등을 굽어주면 내가 네 등을 굽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해 줄게."라는 식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켈라 토리는 무르실리 2세의 첫 번째 역병 기도문에서 이러한 거래적 접근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문에서 태양 여신 아레나가 역병을 퇴치하면 빵과 제주, 또는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들과의 협상이나 거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이스는 히타이트인의 기도가 말 그대로 신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쟁이나 전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도를 뜻하는 히타이트어는 어원적으로 영어 단어 "argument(논쟁)"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aquar)죠. 히브리어로 기도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테필라(Tefillah)도 비슷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신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 달라고 설득하는 일종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래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네 등을 굽어주면 나도 네 등을 굽어줄게”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 제시한 미가 6장과 8장의 선지자들조차도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했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실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의로움과 겸손, 그리고 정의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선지자가 그들에게 온갖 고발을 퍼부은 후에야 그들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하여 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번제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표준적인 종류의 제사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와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천 마리의 숫양과 만 개의 강물과 같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치를 조금 높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해 내 만아들을, 내 몸의 소생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바쳐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생각하는, 일종의 거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혈육에게나 늙은이에게나 선한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으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는 여기 있는 기도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자, 다시 구체적인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실리가 신들과 여신들의 모임에 드린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시편 88편과 89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학자와 비교됩니다.

자,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헤이즈입니다. 유사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히타이트와 시편은 둘 다 어둠 속에 남아 마지막 순간까지 애통해합니다. 이 기도들은 말하는 사람을 여전히 신의 개입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그것을 가지고 있죠. 히타이트 기도문과 89는 모두 왕족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보았듯이 왕과 함께, 왕과 동일시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이 과거에 베푼 호의를 되새기는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호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시편 88편은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히타이트인의 기도문과는 달리 개인의 고통과 죽음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히타이트인의 기도문에서는 왕이 민족을 대표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처럼 기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왕이 민족을 대표합니다. 시편 88편에서처럼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인의 기도문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 현세대와 이전 세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죄책감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지은 조상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무죄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르술리 왕은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가 어긴 맹세 탓으로 돌립니다. 조상들은 의식을 거행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하티족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의식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땅을 대신하여 배상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세대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시편 89편과 상반됩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일종의 정체성입니다.

히타이트 기도와는 달리, 시편 88편과 89편은 신의 진노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일종의 보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들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적인 예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웃들, 고대 근동 이웃들 중에서도, 우리는 아마도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에 더 가까운, 일종의 성경적 애가에 비견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기도문 모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초기 시대의 이러한 기도문, 즉 신들에게 바치는 서면 기도문은 종종 봉헌물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나 무기, 조각상 같은 곳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에게 기도하려는 신 근처의 사원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가져와서 기도문을 새기고,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대신하여 신의 면전에 항상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 물건을 가져오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기도와 함께 신의 면전에 서기 위해 물건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다시피, 이 물건들은 너무 비싸져서 그릇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여기서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문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더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기도문을 쓰고, 대신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려 아홉 가지 유형의 기도를 찾아냈습니다. 제 책 43쪽과 44쪽에서 발견된 다양한 기도의 종류와 그 기도들이 어떻게 식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 통치자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듯이,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많은 기도에는 의식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를 담은 조각상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들을 달래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물이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신이 기도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우 거래적인 사고방식을 보이는데, 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시카 맥밀런은 수메르의 애가 기도를 이슈타르와 성경의 애가 장르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시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고, 특히 성경의 애가와 매우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 신에 대한 찬양, 불평, 청원 같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표현, 길이, 공통적인 문체적 유사성, 시적 기법, 그리고 암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들도 있죠. 그런 종류의 기도문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기도 초반에 광범위한 찬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애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의 기도처럼 초반에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개인적인 탄식을 발견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오, 하나님, 아시죠? 나의 반석이시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찬양하고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애가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장황한 기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애가는 일반적으로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애가는 대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도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수메르 기도문은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신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저는 아무개 중 아무개이고, 그들의 신은 마르두크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공식적인 자기소개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신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자기 소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이유,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내가 여기 있고, 이 신이 나를 대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통치자나 궁정에 앉아 있는 더 높은 권위자의 면전 앞에 놓이는 모습은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신 사이의 거리를 반영합니다. 야훼를 피난처와 방패로 묘사하는 성경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서론적 필요성에서 이러한 거리가 드러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소통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존 윌튼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의 기도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기도 역시 개인을 대신하여 행해진 특정 신의 행위에

대해 신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통의 기도나 특정한 상황을 들으시고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바빌로니아, 즉 바빌론에서 시편이 주로 존재하는 분, 즉 신들의 세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자기 백성의 역사와 개인과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여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바빌론에서 찬양받는 신들은 신들 사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신 역사를 핵심 주제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애가에서 발견되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 즉 성경의 예들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신들이 신들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존재하며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인간과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참회 기도는 죄를 밝히고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일종의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청원자는 신에게 화해나 죄의 해방, 그리고 그 결과의 해방을 구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찾아오지만, 신은 기도에 명시되지 않은 기도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일은 주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주문도 매우 인기가 많았고, 의식적인 행동, 예를 들어 구체적인 지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내용이 적힌 텍스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부적을 사용하고, 집에 피를 바르고, 물건을 태우고, 악을 몰아내고,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지시를 동반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해야 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은 아주 다릅니다. 주문도 아니고, 명확한 지시도 없습니다.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 같은 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런 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부적을 착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집트처럼 메소포타미아의 기도도 죄에 대해 무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 마트와 정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기도는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을 조장하는 대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서 여러 신들을 불쾌하게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들은, 아시다시피, 누구를 진짜로 불쾌하게 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 다른 신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재앙을 초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관점이 다신교적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지에 대한 주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너무 많으면, 다른 신들을 그런 식으로 화나게 할 수 있는 죄들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기도문에는 실제로 중재자가 있어서 당신 대신 서서 당신의 주장을 변호해 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신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중재할 수 있다는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이나 지역 신을 가지고, 그 신들이 더 높은 계층이나 위계질서에 있는 누군가에게 와서 중재를 해 줄 수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신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개자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청원자를 대신하여 한 신이 다른 신에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신에게 자신을 위해 최고신들 앞에서,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을 위해 중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최고신께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각자의 신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위계가 존재했고, 개인은 이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최고신과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개별 신에게도 완전한 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들은 마치 완전한 주권자인 것처럼 칭송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텍스트에서도 신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가 꽤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 도시 애가라는 다른 장르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들은 신에게 드리는 간구처럼 개인적인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이 범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공동체적인, 혹은 일종의 도시 애가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은 도시의 멸망을 애도하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무엇이 그 멸망을 가져왔는지, 도시의 재건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시편의 공동 애가와는 다르지만, 애가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애가서는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을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수메르 도시 애가의 선구자들이 있는데, 애가서에 실제로 영향을 준 내용이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섯 편의 수메르 도시 애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다섯 편의 도시 애가는 우르의 멸망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수메르 도시 애가의 장르와 그 논의 방식을 고려할 때 아마도 가장 유명한 다섯 편의 도시 애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들은 수메르의 여러 도시들이 파괴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지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장르에서든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애가들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건으로 인해 도시와 사원이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사 공격, 전염병, 가뭄, 기근 등 파괴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고, 주민의 손실, 신이 도시를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 도시의 수호신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실제로 도시를 떠나는 동시에 도시와 사원이 복구되고 수호신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여기에 암시되거나 언급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도시 애가가 도시를 재건할 때 낭송되거나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파괴 후 도시가 재건되고 사원이 복구된 후,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기에 이 애가를 낭송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메르 도시 애가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발렉(Baleg)과 우르시마(Urshima)라는 서로 다른 범주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원래 도시 애가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더 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성소를 세우고 복원할 때 사용되었고, 사원의 복원과 개조는 고대 근동 통치자들의 주요 오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키투(Akitu)와 같은 축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것들은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지만,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양한 상황에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학자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가서가 수메르 도시 애가에서 발견되는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형식, 텍스트, 기도문 등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 특히 애가서와 수메르 도시 애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문학이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애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드러나는 맥락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맥락적 영향과 이전 원형들이 이후 작품의 형태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유사점과 성경적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이전 작품들에 대한 신학적 또는 철학적 이해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유익하고 계몽적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가서와 방금 살펴본 모든 애가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의 애가와 그 차이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몇 가지 예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웃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 성경의 애가를 되살리고 싶을 때, 성경의 애가가 무엇이 다른지, 구약의 애가 장르가

당시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예들에서 발견한 차이점을 어떻게 참고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에 신에게 기도를 드렸듯이, 그들은 비슷한 요소, 어휘,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통의 보편적 본질, 우리 삶에서 도움과 간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의 보편적 본질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신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지 물질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신들 앞에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정의를 수호하고 구원, 치유, 그리고 안도감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들 외부, 심지어 영적인 영역과 정의를 수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힘을 가진 신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신성한 존재의 존재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의 세계, 그리고 물리적 세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능력이 인간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창조와 세상의 유지에 나타난 그들의 성품과 일반적인 행위로 인해 널리 칭찬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신과 신들에게도 그런 의미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고 신들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그들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상호작용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이였을까요? 첫 번째는, 다신교적 세계관과 유일신교적 세계관의 차이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신교적 세계관은 모든 신들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건, 신이 너무 많으면 모든 신과 그런 식으로 친밀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있어서 반드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과는 매우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였던, 더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이 혼란에 가담하거나 기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던, 자신들이 다른 신들을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죄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그런 방식으로 신들에게 접근하고 신들에게 간청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신에게, 또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얻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이 와서 자신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만의 신, 이 세상에서 중재자로 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만의 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반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신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다시피, 그물을 넓게 펼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는 신께 다가갈 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선물이나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최고신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좀 더 거래적인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희생 제물이나 제물, 또는 선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매우 광범위한 칭찬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기꺼이 자신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신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많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응답이나 신이 개인을 위해 행한 일을 인정하는 등의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들이 개인을 위해 행한 일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칭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기도는 신들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신과 인간 세계 사이의 더 큰 거리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더 큰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그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약성서는 다신교적 세계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유일신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매우 친밀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2710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부모가 자신을 버린다 해도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돌보실 것임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사실, 그 친밀함은 여기 다른 기도들에서 볼 수 있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래서 야훼께 나아갈 때 공식적인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말하듯, 야훼는 시편 기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고, 야훼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가식 없이, 그저 들어와서 자신의 요청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광범위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애가 기도에서 광범위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거나 부르짖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간구와 애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가와 간구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삼자의 호의를 구할 필요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 기도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최선의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종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죄책과 무죄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 선조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처럼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신약 성경의 신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큰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애통의 기도를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 것을 생각할 때조차도,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애가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임을 더 큰 확신과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애가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가의 장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자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언적 찬양이나 감사의 장르가 대개 개인적인 탄식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허먼 귄켈(Herman Gunkel)은 시편에서 네 가지 유형의 장르를 구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감사 시편인데, 보통 애가, 즉 개별적인 애가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언적 찬양은 하나님의 행위와 개입, 즉 선언적 찬양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선언적 찬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애통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도 그분이 대답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대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영역이나 우주의 심연 속으로, 그리고 아무런 확신 없이 그저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예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모든 것을 은혜롭게 주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애가를 부르면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신학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기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많은 기도가 거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을 용서하거나 없애도록 설득해야 하는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강조점은 자비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와 연관되는 이유도 청원자가 바치고 약속한 희생과 제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기도문들은 주문으로 여겨집니다. 일종의 의식, 선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응답은 그들이 의식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른 선물을 가져오고,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는 종종 거래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거래적 사고방식이죠. 따라서 신에게 다가갈 때, 완전한 행복과 취약함을 안고 다가가는 것보다 단계별 과정을 밟는 것이 더 쉽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기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가는 시편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래적인 사고방식으로 다가가서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시편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지만, 구약성경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제사보다 주님께 더 열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야훼께서는 단순한 제사나 예물을 통해 행동하시도록 설득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찬양의 서원을 드렸지만, 그것들이 주문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희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약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탄식과 간구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 탄식과 성경적 탄식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적 탄식이 하나의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식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실망, 아픔과 수치심, 괴로움을 쏟아낼 때, 우리는 거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야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생각, 소망, 그리고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시편 기자는 새로운 관점과 기대를 발견하고,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읊과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관점을 얻었듯이, 많은 애가 시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경의 애통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 단순히 협상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취약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애통을

회복하는 것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성찰 질문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웃들의 기도에 대한 간략한 논의 후, 이 기도들이 성경의 애가의 독특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 맥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의 독특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이웃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사이에는 어떤 일반적인 신학적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그들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졌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성경의 애가와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들의 애가를 비교하는 내용의 2차시 강의에서 메이 영 박사가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